

송아지 수매의 문제점

조 명 래

갈촌동물병원장

식생활개선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 원초적 공로자는 축산인이다. 그런데 누적된 경기불황의 늪에서 IMF란 된서리를 맞아 축산업은 고사직전의 운명에 놓였다.

양계는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양돈과 비육우는 중풍의 와병에 있다.

최근에 잇따른 “젖소 송아지의 내버리기식 시위”로 농림부는 뒤늦게 젖소 송아지 한 마리당 10만원씩에 수매를 하고 있다.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축협이 주관으로 2만두를 수매하여 축협산하 목장에서 2~3개월 사육한 뒤 모두 도축하여 송아지고기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물에 빠진 낙농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은듯 희비가 반반인 심정으로 너도나도 수매를 신청하다가도 볼멘소리와 함께 원망어린 신세타령도 빼놓지 않는다.

타향객지 외딴 곳에서 목장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고향에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부부가 함께 초상조차도 치르지 못한 불효자 신세가 된다.

더럽고 힘들며 어려운 직업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하루에 2회 이상은 반드시 착유를 해야만 하는 낙농이 낮잠자기에도 빠듯하게 시간의 목을 쥐고 있어 인간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부지불식간에 자라 교육비는 늘어만 가고, 이웃에 아쉬운 소리하기 싫어 농협·축협자금을 끌어들이 농기계류를 장만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영농운영자금이라 아니라 송아지와 폐소값이 바닥세라 고스란히 빛이 되었고, 주거

환경개선책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축산폐수개선장려로 정화조를 개축하고 톱밥우사를 증설하였더니 정부보조금을 넘보다 빚더미에 깔린 처지라 벌써부터 올 겨울 날 난방비가 걱정이다.

한마디로 “소낙비는 오려고하고 똥은 마렵고 괴타리는 옹치고 꼴짐은 넘어지고 소는 뛰어나갔다.”라는 속담 신세나 다름없다.

불과 3년전만 하여도 초유폐기 젖소 송아지 값이 적어도 90~100만원을 호가했다. 그런데 보신용 축견의 뒷다리 하나값에도 못미치는 작금의 5만원이라는 시세는 낙농인을 울화병에 빠지게 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경비가 가장 적게드는 무언의 시위로 “송아지 내다버리기”방식을 묵묵히 택했는지도 모르겠다. 실상은 좀 작은 송아지는 3만원, 쌍태 송아지 두 마리는 5만원에 매매가 되었고, 지난 겨울 수의사의 치료비와 약값이 아까워 병난 송아지를 죽도록 내버려 둘 지경이었다.

또한 자가수정을 실시하는 목장에서도 심지어 정액값을 아끼려고 수소의 자연교미에 의존하게 되어 젖소개량에 역행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하기야 미국이라는 나라의 송아지값은 항상 100불이라고 하니 그동안 우리나라 낙농업은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1981년에 초유폐기 암송아지값이 16만원까지 하락한 이래 처음 말는 최저가 소값파동이니까. 1993년도엔 초임만삭이 450만원, 암송아지가 160만원을 상회한 적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번의 소값 및 우유파동은 사료값의 안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지만, IMF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사료값의 급격한 인상과 소비위축이 뒤따라 언제쯤이면 낙농경기가 회복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수출경쟁력을 위해선 환율이 상향유지되어야 한다고들 하니 환율이 떨어져 사료값이 내려가리란 기대는 접어들 수밖에 없다. 폐업하는 목장이 늘어만 가는 요즘 낙농에 관련된 대동물병원, 인공수정소, 낙농기구상, 동물약품상, 사료판매상, 소증개인(쇠살쥘) 등은 하나 들쭉 문을 닫는 실정이다. 서주유업이 부도로 지금까지 그때 밀린 유대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해태유업마저 부도의 책임을 목장에 전가하듯 낙농가를 이용해 먹고, 기타 유업체는 납유량의 키퍼제 실시, 의무적으로 아니 강제적으로 자사제품인 우유나 분유를 생산자에게 강매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원유등급의 상향조정으로 검사가 까다로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낙농인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는데 축협은 허울 좋게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앞을 내다보며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땅을 밟아가면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을 앞세워 “소처럼 든든한 은행 - 축협”이라는 지상광고에 혈안이다. 혹여 정부의 농가빚탕감정책이 미미하고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아 낙농이 파산지경에 이르면 여기 저기서 BJR(배째라의 영문 머리글자)이 울려 퍼질지 걱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송아지 수매의 문제점에 대한 낙농가들의 강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 보자.

첫째 축협의 송아지수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우선 신청절차를 밟고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축협의 산하목장까지 운반해야 하며 그 송아지는 생후 15일령 미만이어야 한다. 우선 산지 송아지값의 곱절을 주니 반가워 했으

나, 한 마리만을 소차로 수송해야 하는 원거리에 위치한 축주는 이득은 없고 번거롭기만 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목장의 송아지를 모아 한꺼번에 운반한다면 수송비의 부담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소차를 운영하는 소장수만 배부르게 하는 꼴이다. 지난번 서울우유조합에서 유질을 개선하고 엄청난 분유재고량을 해소하기 위해 목장의 납유량을 줄일 목적으로 체세포가 높은 젖소를 도태하면, 두당 30만원을 보조해주었을 때에도 소장수가 설치고 다녀 축주보다는 소장수가 이중으로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또한 새로 구입한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가 납유되었기에 애초의 목적달성은 물거품이 된 경우와 흡사할 지 모른다.

둘째 형편없는 산지 송아지값을 보상에 주고, 적체된 재고분유를 이용해서 수매송아지를 사육하여 2~3개월 후에 도축한다면, 정부로서는 소값의 하락을 막고, 분유의 재고를 줄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젖소의 사육두수를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유로 키우던 송아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총산유량은 증가할 것이고, 암송아지는 후보로 계속 사육하고 수송아지만 수매시킬 때는 젖소두수의 감소계획은 무산될 것이다. 또한 비육우농장에서 송아지를 확보하게 되면(투기성 목적에서) 송아지수매 정책은 산지값의 상승으로 유아무야로 끝나게 되어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셋째 단기적 사육시설에 수많은 송아지의 생후 일령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밀집사육한다면 송아지의 위생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 송아지의 평균 사망율은 6%이지만, 환경과 먹이의 급격한 변화와 부적절한 사양관리가 이어질 때의 폐사율은 예상외로 높아질 것이며 또한 2~3개월 사육한 뒤의 총증체량은 거의 없을 것

우유

이다. 원래 송아지란 생후 6개월령 이하를 말하며, 식육용으로 이용하는 송아지를 영국에서는 bobby calq(생후 바로 도살되는 송아지), 미국에서는 vealer라고 하고 송아지고기는 veal이라고 한다. 개고기를 먹는다고 한국인을 야만인으로 비하시키던 영국에서는 송아지를 생후 첫 주내에 잡아 먹는 엄치없는 습성이 있다. 그렇게 도살되는 송아지의 숫자는 869,000두(1962년), 142,000두(1973년), 537,000두(1975년)이며, 1977년에는 국내소비가 260,000두, 대륙으로의 수출이 360,000두에 달한다. 송아지고기로 이용되는 품종은 에어서, 저지 그리고 건지종이다. 우리나라의 홀스타인종 송아지고기는 어떻게 소비되는지 자못 궁금하다.

■ **끝으로 위와 같은 불만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수매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이다.**

- ① 수매를 희망하는 축주와 10만원을 주고 계약한 다음 적정한 사육비를 제시하고 2~3개월 동안 위탁사육을 실시하여 송아지를 인수하는 방법
- ② 현재 목장에서 키우고 있는 2~3개월령의 송아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하여 곧바로 도축시키는 방법

그렇게 되면 정부가 목표했던 산지 소값의 하락을 예방하고, 목장당 납유량을 줄이며, 젖소 두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책이 되어, 축주나 축협이 짜증스럽고 번거로운 절차나 수송비의 부담 및 임기응변식 사육시설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복더위에 군집사육으로 인한 위장병(설사), 폐렴의 이환이 차단되므로 폐사율을 현격히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임시대안이 아니라, 예측가

능한 상황을 미리 검토한 후에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이론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정부의 주무부서·학계·관련단체 및 연구소와 더불어 반드시 훌륭한 현장의 실제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고견을 듣고 투명하게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길 바란다. 우유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유에 밥을 말아먹는 운동이나 커피에 프림 대신 우유를 타먹자는 운동은 너무나 즉석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우유국수’·‘우유두부’ 등의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젖소에 한우로 인공수정시켜 젖소의 사육두수를 줄이고 태어난 튀기 송아지로 맛있고 새로운 쇠고기를 개발해 내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바라는 쇠고기값의 연동제 실시와 함께 유통구조개혁의 혁신으로 직판장의 숫자가 늘었으면 한다.

또한 우유의 근납물량을 확대하고, 이북동포돕기에 옥수수 대신 국내 생산인 분유를 적극 활용하며, 한시적이지만 분유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산 분유의 이용을 식품업계에 권장하여 낙농의 파산을 막자. 그래도 안되면 정부는 분유의 출혈수출까지 생각하며 이 위기를 감내하며 극복하자. 서주유업에서 천만원 이상의 유대를 못 받은 채로 해태유업으로 옮겼다가 또 수차에 걸쳐 유대를 못 받자 살기가 등등한 얼굴로 현장시위에 나선 한 촌로는 “우유값의 최우선변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목장을 계속 하지, 이제 다 틀렸어. 열심히 일해 생산량을 늘린 우리 같은 농민이 잘못이란 말인가? 유대도 주지 않고 우유를 가져간 놈은 도둑놈이여!”하고 되뇌이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며 “이놈들아, 금강산도 식후경이여”하고 크게 한 번 내뿜는다.

1998. 8. 2.